엘리트문화에 대한 반성

이승훈
한양대 교수·시인

올해는 문학의 해다. 이런 해를 설정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듯이 우리 문학이 일종의 위기를 맞고 있다는 사회현상을 동기로 한다. 무엇보다도 산업사회, 특히 후기산업사회에 접어들면서 우리 문학은 이상한 불안감에 시달리는 느낌이다.

그런 점에서 나는 이번 기회에 우리 문학, 나아가 문화 일반의 현주소를 살피고 앞으로의 방향을 논하는 자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그동안 논의된 내용들은 과문한 탓인지 이렇다 할 새로운 문제점을 제기한 것도 없고 새로운 해결책을 진지하게 모색한 흔적도 없다.

우리 문학의 위기가 상업주의, 대중문학, 영상매체의 등장으로 심화되었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그리고 이런 사회 속에서 문학을 지키기 위해선 상업주의를 비판하고, 대중문학을 공격하고, 영상매체의 폭력으로부터 문학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 역시 상식이다. 하기야 상식이 제대로 통하지 않는 사회에선 이런 상식적인 주장만이라도 하는 것이 안하는 것보다야 낫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주장들을 펴는 학자나 문인들이 한결같이 문화 보수주의자들이며 문화 엘리트주의자들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그들의 시각에 의하면 진보적인 전위미학은 사회를 파괴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고, 대중문학은 의식의 퇴행을 불러오기 때문에 비판된다.

과연 그런가? 문학이라는 이름의 이 이상한 제도는 모든 제도가 그렇듯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문화 보수주의자들이 믿듯이 그렇게 위대한 것도 아니다. 문학의 진리가 진리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진리를 파괴할 때 가능하고, 그런 점에서 문학은 진리를 지키는 파수꾼이 아니라 진리라고 믿어온, 특히 부르주아 이데올로기 속에 기생하는 그럴 듯한 진리를 파괴하는 힘을 소유한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무슨 문화적 가치를 지키려는 안타까운 몸짓이 아니라 문학적 인습으로부터의 해방이고, 새로운 글쓰기에 대한 개방적인 토론이다.

대중문학을 비판하는 것 역시 그렇다. 대중문학이 무슨 죄가 있는가? 이성을 잠들게 하고 의식을 마비시키고 사고의 표준화를 강요하기 때문에 비판의 대상이 되고, 문화산업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된다. 모두가 배운자들, 지식인들, 학자들의 주장이다.

대중문화는 비판적 기능이 없고 오락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무가치한 것으로 매도되지만 모든 문화가 사회에 대한 비판 의식을 추구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사는 데에는 오락도 필요하다. 베토벤도 듣고 노래방에 가서 노래도 하는 게 인간이다. 대중문화 속에는 사회적 억압에 대한 저항과 갈등도 있다. 요컨대 엘리트문화만을 고집하고 문학의 인습적 가치만을 고집하는 건 또 하나의 지적 폭력이라는 생각이 든다. ❖

출판저널
1996년 7월5일 제195호
격주간·매월 5,20일 발행
THE KOREA PUBLISHING JOURNAL, biweekly

초점 2 **개정 저작권법 시행, 궁금증을 푼다**
텍스트 선정에서 출간까지 실무 저작권 문답

기획 취재 3 **최상의 번역본이 최고의 경쟁무기**
저작권법 강화로 스카우터 채용 등 움직임

저자 초대 4 **《한국의 건축》 펴낸 윤장섭 교수**
5 **《과학과 철학》 《과학과 불교》 펴낸 김용정 교수**

여름 기획 6 **세계로 떠나는 길**
인도 / 중국·실크로드 / 유럽 /
미국·아프리카 / 세계일주
12 **주제가 있는 국내 여행의 새로움**
산·숲 / 바다·섬·장터 / 문학기행 / 집중테마

출판 화제 14 **우리의 '숙제'는 통일**
통일로 가는 길 모색한 책

화제 15 **어학 CD·롬 매거진 창간한 다락원**

출판 화제 16 **'지성의 거목'이 남긴 20세기 발자취**

리포트 17 **상반기 베스트셀러 '소설'이 평정**

서점가 스케치 18 **통로에 앉아 책 읽는 사람들**
리포트용으로 베껴가기도… 방학 때는 더욱 급증

책 읽는 사람 20 **길가에 주저앉아 잠시 펼치는 책**
1 방랑자의 책읽기

책갈피 산책 21 **주강현 《우리문화의 수수께끼》를 읽고** — 임재해
이희승 《딸깍발이 선비의 일생》을 읽고 — 김문찬

해외신간 리뷰 22 **필립 키처의 《다가올 우리의 삶》** — 김동광
로렌스 E. 서스킨드의 《환경외교》 — 김학준

국제도서전 화보 24 **'문화는 구호가 아닌 현실의 힘'** — 박남현
'96 미국 ABA도서전을 돌아보고

확대 서평 26 **리하르트 빌헬름 《주역 강의》** — 곽신환

서평 27 **이미원 《포스트모던시대와 한국 연극》** — 이상우
강태희 외 《미술·진리·과학》 — 이종숭
28 **장상 외 《신학하며 사랑하며》** — 서정민
강명헌 《재벌과 한국경제》 — 장지상
29 **폴락 《생명의 기호》** — 홍영남

이 책 그 사람 30 **《본드·가스 이야기》 펴낸 주왕기 교수**
《TV에 중독된 내 아이 어떻게…》 펴낸 김병록씨
31 **《조선시대 7인의 정치사상》 펴낸 부남철씨**
《꽃길 사진여행》 펴낸 사진작가 송기엽씨

새책 흐름 32 **삶 곳곳에 남은 한국전쟁의 상흔·외** / 인문·사회
34 **새책 속으로** / 40 **새로 나온 책**
48 **출판인에게 띄우는 편지** — 이중한

표지 사진 / 정진국